

WEBVTT

00:00:09.234 --> 00:00:11.723

여러분, 안녕하세요?
김종회입니다.

00:00:11.748 --> 00:00:17.739

이번 시간에는 최인훈의 광장이라고
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00:00:29.769 --> 00:00:34.255

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은
한국 문학사에서

00:00:34.280 --> 00:00:36.943

아주 뜻이 깊은 작품이에요.

00:00:38.890 --> 00:00:49.843

이 작품이 쓰이고서 1960년부터
20세기 말까지 40년간

00:00:50.475 --> 00:00:57.363

그리고 21세기 들어서 10여 년간
여전히 베스트 셀러 리스트에

00:00:57.388 --> 00:00:59.390

올라 있는 작품이에요.

00:00:59.789 --> 00:01:05.829

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
광장이라는 작품은

00:01:05.854 --> 00:01:10.448

반드시 읽어야 한다,
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니다.

00:01:10.882 --> 00:01:12.524

왜 그럴까?

00:01:13.773 --> 00:01:18.412

광장이라는 작품 속에는
이명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고

00:01:19.379 --> 00:01:26.627

전쟁 중에 남에서 북으로 갔다가
전쟁이 끝날 무렵에 포로로 잡히는데

00:01:27.015 --> 00:01:31.015

이명준은 남북 양쪽 중에
어느 한쪽을 택하지 아니하고

00:01:31.040 --> 00:01:33.378

제3국으로 가기로 합니다.

00:01:33.403 --> 00:01:38.213

그래서 타고르호라는 배를 타고
인도로 가다가

00:01:38.238 --> 00:01:40.781

바다에서 실종되는 이야기에요.

00:01:41.566 --> 00:01:45.566

남과 북 어느 한쪽에
중심을 두지 아니하고

00:01:46.644 --> 00:01:52.619

두 시스템에 대해서
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.

00:01:53.226 --> 00:01:58.437

그러니까 5.16 혁명 이후에
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

00:01:58.462 --> 00:02:02.584

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
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.

00:02:02.609 --> 00:02:08.276

혁명공약의 제1조인데 이런 세력과
부딪히면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

00:02:08.301 --> 00:02:11.648

또는 그 작가는 남아날 길이 없죠.

00:02:12.992 --> 00:02:18.417

그러니까 이 광장은
4.19 혁명 이후에

00:02:18.442 --> 00:02:25.048

5.16 혁명 이전에 잠깐 개방되었던
지적 자유로움의 분위기.

00:02:25.316 --> 00:02:28.018

그 분위기에서 탄생되었던 작품이죠.

00:02:28.577 --> 00:02:31.121

그러니까 그 이후의 작품들은
이 광장처럼

00:02:31.146 --> 00:02:34.496

남과 북을 이렇게 대등한 방식으로
볼 수 있는

00:02:35.999 --> 00:02:39.014

그런 환경 위에 있지 않았습시다.

00:02:39.711 --> 00:02:47.426

그다음에 이명준이라고 하는 인물이
남쪽에서 만나던 애인

00:02:47.738 --> 00:02:51.406

또 북쪽에서 만난 애인.

00:02:51.431 --> 00:02:55.800

이 두 사람 사이에서 광장이라고 하는
문제와 밀실.

00:02:55.825 --> 00:03:04.658

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하는
사람들의 모임과

00:03:04.683 --> 00:03:08.133

개인이라고 하는 내밀한 존재.

00:03:08.636 --> 00:03:13.880

이런 형이상학적이고
그러나 구체적인 이런 문제들을

00:03:13.905 --> 00:03:16.263

함께 작품 속에서 살펴보는

00:03:16.683 --> 00:03:19.872

그와 같은 소설이라고
할 수가 있겠습니까.

00:03:20.003 --> 00:03:21.757

최인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

00:03:21.782 --> 00:03:28.218

이 사람은 1959년에 그레이구락부
전말기라고 하는 작품으로 등단을 했고

00:03:28.480 --> 00:03:37.139

그다음에 1960년에 가면고를 쓰고
또 광장을 썼죠.

00:03:37.285 --> 00:03:40.393

그러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

00:03:41.215 --> 00:03:47.871

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회색인
또 서유기,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.

00:03:49.218 --> 00:03:51.699

소설과 구보씨의 하루는
박태원의 작품인데

00:03:51.724 --> 00:03:55.317

그걸 패러디해서 소설가 구보씨의
일일이라고 쓴 겁니다.

00:03:55.625 --> 00:04:00.884

그리고 태풍 또 말년에 쓴
화두 이런 작품들.

00:04:01.191 --> 00:04:07.109

화두라는 작품이 발간될 때
제가 그 책 뒤에

00:04:07.134 --> 00:04:10.540

최인훈의 문학적 연대기를
쓴 적이 있습니다.

00:04:10.762 --> 00:04:15.755

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어렵습니다,
난해해요.

00:04:15.780 --> 00:04:18.444

아주 까다로운 작가입니다.

00:04:18.625 --> 00:04:24.642

그러면서 지적 수준에 있어서

그 시대에, 말하자면 그 시대는

00:04:24.688 --> 00:04:25.800

우리 시대이기도 하죠.

00:04:25.825 --> 00:04:30.274

우리 시대의 가장 전방 지점까지
가 있던 그런 작가고

00:04:30.527 --> 00:04:36.700

그다음에 이 작가는 이후에 계속해서
연극 대본으로서 희곡을 썼습니다.

00:04:36.725 --> 00:04:40.515

희곡도 그 수준이 높아서
정말 만만치 않은 작가.

00:04:40.540 --> 00:04:48.351

어지간한 이론가는 이 작가 앞에서
말로써 서로 대화하기 쉽지 않은

00:04:48.376 --> 00:04:50.217

그런 작가였죠.

00:04:53.984 --> 00:04:59.575

최인훈의 소설은 관념과 현실
또 문학과 사회라는

00:04:59.600 --> 00:05:03.476

이런 양자적 측면을
함께 다루고 있어서

00:05:03.625 --> 00:05:07.050

상당한 논란의 화제가 되었고
지금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

00:05:07.075 --> 00:05:11.608

뿐만 아니라 광장에서부터
보이기 시작하는

00:05:11.633 --> 00:05:19.055

이 작가의 사유로서의 문학
또 문학으로서의 사유.

00:05:19.785 --> 00:05:25.058

그러니까 문학과 사유,
생각, 사상 이런 뜻이죠.

00:05:26.386 --> 00:05:30.732

이것이 팽팽한 대립적 긴장감을 갖고

00:05:30.879 --> 00:05:35.425

그다음에 기법으로서는
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

00:05:36.249 --> 00:05:38.254

이런 글쓰기 방법.

00:05:38.279 --> 00:05:41.173

역사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.

00:05:42.012 --> 00:05:46.182

이렇게 작품 세계를 일관해 가는
특성이 있습니다.

00:05:46.406 --> 00:05:53.938

이 작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월남한
실향민이죠.

00:05:54.180 --> 00:06:01.566

그러니까 그가 보았던 이북과 이남,
북한과 남한, 서로 괴리된 사회

00:06:01.591 --> 00:06:05.126

이런 것이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
그의 작품 곳곳에

00:06:07.475 --> 00:06:10.835

인간 삶의 갈등의 문제로
드러나고 있습니다.

00:06:11.776 --> 00:06:16.132

이 작가가 지향했던 문학 또는
예술이라고 하는 것은

00:06:17.070 --> 00:06:22.225

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주의의
바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
00:06:22.753 --> 00:06:27.658

추상과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
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

00:06:28.047 --> 00:06:34.071

또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
이를테면 이 추상, 구상을 아울러서

00:06:34.160 --> 00:06:40.573

순수한 창조의 발현, 창조력,
창조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현이다,

00:06:40.598 --> 00:06:41.935

이런 얘기죠.

00:06:42.148 --> 00:06:51.271

이를테면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
지식 위주로 치우친 것 같은,

00:06:51.296 --> 00:06:55.472

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
이런 글쓰기.

00:06:56.609 --> 00:07:00.055

중용이나 인간주의에 입각한
실존적 글쓰기

00:07:00.080 --> 00:07:04.080

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한꺼번에
설명할 수는 없으나

00:07:04.480 --> 00:07:10.065

사르트르의 글쓰기 또는 글에 대한

인식과 소통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

00:07:11.413 --> 00:07:13.418

최인훈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

00:07:13.443 --> 00:07:17.443

그래서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독특한 하나의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고

00:07:17.859 --> 00:07:21.289

그것이 어렵다고 해서
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.

00:07:21.628 --> 00:07:25.387

그래서 지금 최인훈 연구도
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00:07:26.628 --> 00:07:31.709

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
이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은

00:07:32.820 --> 00:07:36.220

최인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
역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00:07:36.245 --> 00:07:40.490

최인훈은 이 작품을 여러분,
7번이나 고쳐 썼습니다.

00:07:40.964 --> 00:07:45.159

작가가 작품을 쓴다고 하는 것은
어떤 의미일까요?

00:07:45.476 --> 00:07:48.643

작품이 발표되고 나면 그것은
작가의 것이기보다는

00:07:48.668 --> 00:07:51.902

그 사회의 정신적, 문화적
소산인 것인데

00:07:51.927 --> 00:07:54.277

작가가 이거를 마음대로
고쳐도 되는 것일까요?

00:07:54.695 --> 00:07:56.074

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.

00:07:56.099 --> 00:08:02.833

그러나 이 작가는 광장이라고 하는
소설로 쓴 한국 사회의

00:08:03.151 --> 00:08:07.558

근본에 대한 문제를
새롭게 고쳐 쓰기를 원했다.

00:08:07.583 --> 00:08:10.321

그것은 한국 사회 근본에 대한

00:08:10.346 --> 00:08:14.634

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

달라졌다, 이런 뜻이기도 하죠.

00:08:15.164 --> 00:08:19.587
또 7번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
아예 고치기로 작정을 했다는 뜻인데

00:08:19.832 --> 00:08:25.180
그래서 고친다고 하는 행위 속에
나오는 이를 떼면

00:08:27.624 --> 00:08:31.186
처음에는 타고르호를 타고 갈 때

00:08:31.991 --> 00:08:34.887
돛대를 따라서 갈매기
2마리가 따라오는데

00:08:34.990 --> 00:08:37.326
갈매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

00:08:37.722 --> 00:08:43.071
남한에 두었던 애인과
북한에 두었던 애인

00:08:43.464 --> 00:08:47.680
이 두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방식.

00:08:47.705 --> 00:08:50.628
남북과 남북에 남아 있는 이를테면

00:08:50.653 --> 00:08:53.885
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로
생각을 했는데

00:08:54.461 --> 00:08:59.343
후반으로 가면 이 갈매기 2마리가
북한에 있던 애인과

00:09:00.789 --> 00:09:05.552
그 애인의 뱃속에 있던,
잉태하고 있던 아이,

00:09:05.577 --> 00:09:11.274
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
남한에 있던 애인의 이름은 은혜고

00:09:11.299 --> 00:09:13.797
북한에 있던 애인의 이름은
은혜입니다.

00:09:13.822 --> 00:09:18.213
은혜와 그 딸이라고 치환해서
바꾼단 말이죠.

00:09:18.238 --> 00:09:19.836
그러면 이것을 뭘 말하는 것일까?

00:09:19.997 --> 00:09:24.280
남북한의 문제보다 이 작가가
더 중점을 둔 것은

00:09:25.320 --> 00:09:31.443

인간과 인간으로 이어지는
그 연대의 문제, 혈연의 문제.

00:09:32.195 --> 00:09:36.720

이 문제가 남북 관계보다 훨씬
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?

00:09:36.745 --> 00:09:39.468

이렇게 유추를 해 볼 수 있습니다.

00:09:41.023 --> 00:09:48.994

오랜 시간의 개작 과정에서
표면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

00:09:49.890 --> 00:09:53.564

문장을 정교하게 바꿨다고
하는 것입니다.

00:09:53.588 --> 00:09:57.949

문장을 아주 다듬고 문장이
아주 정확한 작가인데도

00:09:57.974 --> 00:09:59.969

그 문장을 계속 고치고 있고

00:10:00.300 --> 00:10:03.194

그리고 새로운 인물이
등장하기도 하고

00:10:03.219 --> 00:10:07.712

이명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의
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

00:10:08.035 --> 00:10:15.495

이런 것들은 이 작가가 전쟁 전후에
이어지는 시대상

00:10:15.520 --> 00:10:21.302

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
그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했다.

00:10:21.327 --> 00:10:24.648

작가의 인식 자체가
달라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.

00:10:24.673 --> 00:10:28.755

시대를 보는 눈이 훨씬 더
인간주의, 인본주의적으로

00:10:28.780 --> 00:10:31.865

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
보여줍니다.

00:10:32.773 --> 00:10:39.203

인간에 대한 애정 또 인간을
비참하게 만드는 체제에 대한 비애

00:10:39.364 --> 00:10:44.183

이런 것이 이 광장이라는 작품에
함께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.

00:10:46.816 --> 00:10:51.772

여러분, 작가들이 개작을 하는
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
00:10:51.797 --> 00:10:56.100

김동리는 무너도라고 하는
아주 수발한 단편을

00:10:56.125 --> 00:10:58.518

을화라고 하는 장편으로 고쳤어요.

00:10:58.867 --> 00:11:03.371

이문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
중편을 장편으로 고쳤습니다.

00:11:04.062 --> 00:11:07.007

그래서 이런 개작이라고 하는 것은

00:11:07.032 --> 00:11:11.845

단순히 소설의 분량을
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

00:11:12.050 --> 00:11:16.695

작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
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거나 달라졌다

00:11:16.720 --> 00:11:18.646

이런 의미이기도 하죠.

00:11:19.140 --> 00:11:23.900

최인훈의 경우에 이와 같은 개작,
작품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

00:11:25.117 --> 00:11:26.199

중요한 의미가 있고

00:11:26.224 --> 00:11:31.760

그것이 최인훈뿐만 아니라
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

00:11:32.019 --> 00:11:34.576

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
바라보아야 할 것인가?

00:11:34.601 --> 00:11:38.196

정말 중요하게 끝까지
붙들고 있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

00:11:38.808 --> 00:11:42.076

이런 문제들을 환기하게 합니다.

00:11:42.969 --> 00:11:46.761

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이
이전에 다른 한국 소설들과

00:11:46.786 --> 00:11:49.310

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면

00:11:50.078 --> 00:11:56.682

6.25라는 아픔과 분단이라는 경험이

기존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

00:11:56.707 --> 00:12:00.707
체험적인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서

00:12:00.917 --> 00:12:04.310
지식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
바라볼 것인가 하는

00:12:04.335 --> 00:12:09.045
보다 깊은 사유에 의해서
쓰였다고 하는 점이죠.

00:12:09.070 --> 00:12:14.242
더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의
접근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.

00:12:14.267 --> 00:12:19.657
갑작기 불어닥친 근대에 대한
반성적 성찰 같은 것.

00:12:19.682 --> 00:12:27.030
이런 지적인 기량이 충만한 작가가
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죠.

00:12:27.094 --> 00:12:32.703
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분법적
사고에서 볼 수 있는 남북이 아니라

00:12:32.728 --> 00:12:39.177
제3국을 선택한다고 하는
이명준의 방향성

00:12:39.202 --> 00:12:43.657
이 자체가 당시로써는 매우
파격적이 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

00:12:43.682 --> 00:12:47.220
그러니까 광장은 양자를 포괄하면서

00:12:47.245 --> 00:12:51.146
그것을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
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

00:12:51.171 --> 00:12:52.839
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

00:12:52.864 --> 00:12:55.029
여러분,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를

00:12:55.312 --> 00:12:59.588
그러니까 조국 광복 이후에 이 시대를
통칭하는 용어가 있다면

00:12:59.613 --> 00:13:02.489
그것은 분단 시대라고 하는 말이죠.

00:13:02.514 --> 00:13:12.141
분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,
우리 국민이 언제나 벗어날 수 없는

00:13:12.166 --> 00:13:16.633

오히려 그것을 치열하게 생각하고
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,

00:13:16.658 --> 00:13:21.407

분단의 문제 또 이데올로기의 문제,
그에 상충되는 사상의 문제

00:13:21.432 --> 00:13:25.848

또 그 속에 있는 개인의 문제,
사람의 문제

00:13:26.038 --> 00:13:30.764

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
이 작품은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

00:13:30.789 --> 00:13:34.323

중요한 텍스트라고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13:34.476 --> 00:13:39.008

광장을 혹시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
이건 읽어야 하는 작품이에요.

00:13:39.033 --> 00:13:43.435

여러분, 광장을 한번 다시
살펴보시기 바랍니다.